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보건중사자를 우선으로 단계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사회·복지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신청 접수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을 위해
노트북 등 지원

사회·복지 도시빈민 지원 위해 '5MY 정책' 시행
교정시설 수감자 자녀 지원 확대

환경·안전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 도입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보건종사자를 우선으로 단계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사회·복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자카르타주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식약청의 긴급용도 백신 접종 승인으로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개시하고 관련 법규를 마련. 보건종사자를 우선으로 총 4단계에 걸쳐 백신 접종을 시행. 백신 접종 개시 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임

코로나19 추이

- 인도네시아의 3월 19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45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39,000명,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약 6,000명 내외를 기록
 - 올해 1월 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0,000명 내외로 정점을 찍은 뒤에는 감소세를 보임
 - 자카르타주는 최다 감염지역으로 누적 확진자 수 약 37만 명, 누적 사망자 수 약 6,100명,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약 1,500명을 기록

중앙정부의 백신 접종 준비 및 대응

- 중앙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현재까지 4억 2,600만 도즈(1회 접종분) 이상 백신 수입계약 체결
 - 중국 시노백社 1억 2,550만 도즈, 미국 노바백스社 5,000만 도즈,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백스(COVAX) 퍼실리티 5,000만 도즈, 영국 아스트라제네카社 1억 1,000만 도즈, 미국 화이자社 5,000만 도즈 등
 - 시노백社 백신 수입물량 120만 도즈가 2020년 12월 7일 첫 도착
 - 재무부는 백신 수입·유통 및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으로 54조 4,400억 루피아를 책정
 - 2022년 3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전체 인구의 70%인 1억 8,150만 명 (1인 2회)을 접종 대상으로 함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주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플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 식약청은 중국 시노백社 백신(1월 11일) 및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3월 9일)에 대한 긴급용도 접종을 공식 승인
 - 자국 제약사 PT. Bio Farma가 반둥市에서 수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 65.4%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PT. Bio Farma는 시노백社 백신 1억 5,400만 도즈를 연말까지 위탁생산 예정
- 백신 접종은 2022년 초까지 총 4단계로 진행
 - 1단계(2021년 1월~3월): 보건종사자 및 의료계열 대학생 총 150만 명
 - 2단계(2021년 2월~4월): 군인·경찰·교사 등 공무원과 필수서비스 종사자 총 1,730만 명 및 60세 이상 국민 총 2,150만 명
 - 3단계(2021년 5월~2022년 3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4단계(2021년 5월~2022년 3월): 나머지 국민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 국민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미 1월에 시범적으로 1·2차 접종을 완료
- 3월 20일 기준 전국에서 약 550만 명 1차 접종, 약 230만 명 2차 접종 완료
 - 보건종사자 1차 접종 약 145만 명(목표 대비 98.4%), 2차 접종 약 125만 명(목표 대비 84.1%)
 - 공공서비스 종사자 1차 접종 약 320만 명(목표 대비 17.8%), 2차 접종 약 106만 명(목표 대비 6.1%)
 - 60세 이상 국민 1차 접종 약 103만 명(목표 대비 4.7%), 2차 접종 약 8,400명(목표 대비 0.04%)
- 백신 접종자에 대해 디지털 접종증명서를 발급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
 - 보건부는 항공편 탑승이나 공연 참석, 종교모임 등에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백신의 유효성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명서 발급이 오히려 개개인(특히 이동의 자유를 노린 부유층)의 보건지침 준수를 게을리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많음

자카르타 주정부의 백신 접종 준비 및 대응

- 주정부는 보건부 방침에 따라 관내 보건종사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백신 접종 개시
 - 2020년 12월에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에 관한 주지사 지침에 따라 시설 인프라와 인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준비에 착수

-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C40 시장 정상회의(3월 18일) 중에 주민 880만 명 및 자카르타 통근자 12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목표를 발표
 - 공동체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15,000명/일 접종을 추진 중
 - 2021년 6월까지 1·2단계 우선 그룹 300만 명에 대한 접종 완료와 7월부터 3·4단계 그룹 접종 개시를 목표
 -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와 아흐마드 리자 파트리아 부지사는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어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이번 백신 접종에서 제외
- 정부의 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인 P-Care에 등록, 저온유통(콜드체인) 보유, 보건부 운영허가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보건시설에서 백신 접종 시행
 - 드라이브스루, 노약자 픽업서비스 등 다양한 접종 방안 마련
 - 간단한 신체검사와 혈압 측정 외에도 총 16개 질문으로 구성된 문진을 통해 접종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판별
- 또한, 주정부는 백신 접종 거부 시 최대 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지원비 수령이나 공공서비스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 사실상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무접종 방침에 반발한 일부 시민의 법원 제소로 다소 논란이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 보건부 웹사이트(<https://kemkes.go.id>)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10317114716-20-618529/kemenkes-buka-peluang-vaksinasi-masyarakat-rentan-mulai-mei>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21/01/14/izin-bpom-untuk-vaksin-covid-19-sinovac-resmi-diterbitkan?page=all>

<https://jakartaglobe.id/news/indonesias-bio-farma-to-produce-154-million-doses-of-sinovac-vaccine>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10317171217-20-618760/vaksinasi-tenaga-kesehatan-molor-target-selesai-maret-2021>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21/01/14/menkes-setuju-usulan-warga-yang-divaksin-covid-19-dapat-sertifikat-politikus-pdip-mengkritik?page=all>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1/13/jokowi-gets-first-coronavirus-jab.html>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21/01/13/anies-baswedan-dan-ahmad-riza-patria-tak-penuhi-syarat-program-vaksinasi-covid-19-di-jakarta>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21/01/14/berikut-persyaratan-faskes-untuk-laksanakan-program-vaksinasi-covid-19-di-jakarta>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1/03/18/19444421/anies-10-juta-warga-jadi-target-vaksinasi-di-jakarta>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21/01/15/sebelum-divaksin-covid-19-calon-penerima-wajib-jawab-16-pertanyaan-dan-lakukan-penapisan-di-jakarta?page=all>

<https://metro.tempo.co/read/1415874/wagub-dki-pastikan-denda-penolak-vaksinasi-covid-19-hanya-dikenakan-satu-kali>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2/15/get-vaccinated-or-lose-your-social-aid-indonesian-government-says.html>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신청 접수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 접종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 신청 접수를 시작. 난민과 불법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

코로나19 추이 및 백신 확보 현황

-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봉쇄 조치 현황
 - 말레이시아는 연초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3,000명을 기록하자 1월 12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라왁주를 제외한 전국에 봉쇄령 3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이동제한령(MCO)¹⁾ 시행
 -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수도권(쿠알라룸푸르, 슬랑고르)과 조호, 페낭 등 4개 지역에는 이동제한령(MCO)을 3월 4일까지 2주 연장
 -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낮아지자 3월 5일 수도권(쿠알라룸푸르, 슬랑고르), 조호, 페낭에 시행 중이었던 이동제한령을 해제하고 2단계 봉쇄 조치인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을 시행
 - 꼬다, 클란탄, 느그리슴빌란, 사라왁, 페락 등 5개 지역은 조건부이동제한령(CMCO) 유지
 - 므라카, 파항, 사바, 프렝가누, 푸트라자야, 라부안, 브를리스 등 7개 지역에는 가장 완화된 1단계 봉쇄 조치인 회복이동제한령(RMCO)을 실시
 - 이에 따라 3월 5일부로 조건부이동제한령(CMCO)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9개 지역, 회복이동제한령(RMCO) 시행 지역은 7개 지역
- 백신 구매계약 체결
 - 말레이시아는 2020년 11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화이자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
 - 말레이시아는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 스푸트니크 V백신, 중국 시노백 백신, 중국 칸시노바이오로직스 백신 등 총 5개사 백신 6,670만 회 분량 확보
 - 화이자 백신 가운데 31만 2,930회 분량은 3월 21일 쿠알라룸푸르에 1차 도착

1) 이동제한령(MCO)은 봉쇄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필수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 운영을 제한

- 무히딘 야신 총리는,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3,200만 명의 80%인 2,650만 명에게 접종하고도 남은 만큼 백신을 확보했다고 2월 4일 발표
 -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까지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힘
- 2월 11일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카이리 장관은 말레이시아 거주 난민과 불법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 백신 접종 준비

- 말레이시아는 민간병원과 협력해 백신을 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고, 백신 접종센터 605개소를 확보
- 화이자 백신 등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냉동 보관이 필요한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초저온 냉동고 설치
- 1월 29일 백신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해 백신이 접종센터에 도착하기까지 시범 운송
- 코로나19 백신 1병당 6회 접종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를 필요한 양만큼 확보해 접종센터를 운영

○ 백신 접종 프로그램 시행

- 보건당국은 2월 26일로 예정했던 접종 프로그램 시작일을 24일로 이틀 앞당김
-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
 - 1차 접종(2021년 2월~4월) 대상은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 50만 명
 - 2차 접종(2021년 4월~9월)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개인 및 집단 940만 명
 - 3차 접종(2021년 5월~2022년 2월)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및 외국인 1,370만 명
-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신청 접수 시작
 - 3월 1일부터 보건소, 보건부 애플리케이션(MYSejahtera),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접종 등 3가지 방법으로 백신 접종 신청 접수 시작
 - 보건부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권고. 보건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종 신청은
 - ① 애플리케이션 실행 및 업데이트(version number 1.0.28), ② Covid-19 vaccination 버튼 클릭, ③ 개인정보(이름, 여권번호, 핸드폰번호) 등록, ④ 핸드폰번호 인증, ⑤ 백신 접종 등록 순으로 진행
 - ⑤ 백신 접종 등록 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 여부, 동반 질환, 장애 여부, 거주지 등 4가지 정보를 등록

- 3월 5일부터는 전화와 온라인으로도 백신 접종 신청 가능
 - 백신공급접근보장위원회 핫라인(1800-888-828) 또는 홈페이지(vaksincovid.govmy)에서 접수 가능
- 백신 면제 증명서 발급 검토
 - 3월 9일 과학기술혁신부 카이리 잠마루딘 장관은 알레르기나 면역체계 문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면제 증명서 발급을 검토한다고 발표
- 3월 17일 현재 백신 접종 목표 인구의 24.2%인 586만 7,497명이 백신 접종 신청 접수
 - 백신 접종 등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72.4%)이며, 그다음은 쿠알라룸푸르(35.5%), 슬랑고르(35.1%), 페낭(30.4%) 순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3/14/mysejahtera-now-shows-your-first-covid-19-vaccine-registration-date/1957615>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3/14/mysejahtera-now-shows-your-first-covid-19-vaccine-registration-date/1957615><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2/23/mysejahtera-you-can-now-register-for-covid-19-vaccine-with-latest-update/1952102>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2/16/dr-adham-baba-all-605-vaccination-centres-have-ultra-cold-storage-needed-for/1950209>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을 위해 노트북 등 지원

캐나다 앨버타주 / 사회·복지

앨버타주는 연방정부와 민간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유행으로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적인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노트북을 무상 제공 혹은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 또한 인터넷 사업자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 실시

배경

-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온라인 교육 장비 및 인터넷 환경 미비 문제가 대두
 - 2020년 3월 앨버타 주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발표
 - 앨버타 교사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봄 이후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는 데 필요한 기기가 부족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 취약계층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컴퓨터 지원 사업
 - 교육청 차원의 지원사업
 - 앨버타주에 속한 캘거리 공립 교육청은 2020년 11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자 중고등학생들에게 약 6천 대의 노트북을 전달
 - 또한 자선단체인 'Education Matters'의 기부금 200,000달러를 활용해 500대의 노트북을 추가로 마련하여 대여
 -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노트북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
 - 다자녀가 동시에 접속해야 하는 등 인터넷 이용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받고, 교사도 만나볼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
 - 캘거리市에서는 관내 초중고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을 10%(약 5천 명)로 추산하여 지원사업을 시행

- 컴퓨터 포 스쿨 플러스(Computer for School Plus) 프로그램 시행
 - 1993년부터 시작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전자기기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며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고급 디지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턴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앨버타주에서만 평균적으로 매년 10,000대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앨버타주에서도 총 500대의 데스크톱 및 노트북을 추가로 무료 제공
- 민간 복지재단의 노트북 드라이브 사업 시행
 - 청소년, 이민자, 미혼모, 노인 및 원주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복지 재단인 C5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 가정에 기증받은 노트북을 직접 나눠주는 사업 실시
 - 개인 기부자의 가정을 재단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수령한 후 살균 과정을 거쳐 직접 저소득층 가정에 배포
 -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노트북을 30,000명에게 전달



[사진] 개인 기부자에게 기증받은 노트북

(출처: <https://www.immigrant-education.ca/laptop-donations-2020/>)

○ 인터넷 사업자의 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캐나다 대형 인터넷 사업자인 텔러스는 인터넷 포 굿(Internet for Good)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
 -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대상으로 제한
 - 24개월 동안 초당 25메가바이트 기준 월 9.95달러의 정액제로 이용 가능
 - 텔러스 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학습 모듈도 지원
 - 현재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의 33,000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

<https://globalnews.ca/news/6791503/coronavirus-alberta-computers-for-schools-online-learning/>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laptop-drive-marginalized-c5-1.5511853>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chromebook-shortage-parents-scrambling-online-learning-1.5732706>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도시빈민 지원 위해 ‘5MY 정책’ 시행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빈곤 대책을 ‘5MY 정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새로운 도시빈민 지원정책인 5MY는 직업, 기초생활, 교육, 의료, 음식 등 5개 부문 지원을 목표로 운영

배경

- 말레이시아 ‘빈곤선 소득’ 상향 조정
 - 2020년 7월 10일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빈곤선 소득(Poverty Line Income, PLI)을 월 980링깃에서 2,280링깃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빈곤선 소득 기준을 정한 뒤 15년간 같은 방식으로 빈곤선 소득을 측정해 왔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2018년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계비는 1인 기준 월 2,700링깃으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빈곤 소득 기준 980링깃과 큰 차이를 보임
 - 빈곤선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빈곤층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빈민 지원 정책 확대 추진
-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제한령 시행에 따른 도시빈민 문제 심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봉쇄조치 중 가장 강력한 이동제한령(MCO)을 시행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제한령과 상점 영업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도시빈민 문제 심화
 - 쿠알라룸푸르 인구 180만 명 중 3만 명 이상이 월 소득 2,200링깃 이하의 빈곤층
 - 이에 따라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라부안)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도시 빈곤 대책을 5MY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
 - 그동안의 도시 빈곤 대책은 기존 정책에 새로운 지원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발표로 도시빈민 지원정책을 전면 개편

도시빈민 지원정책 5MY의 주요 내용

- 5단계 소득 기준 하위 40%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주민을 우선 지원할 방침
- 5MY 정책은 기존의 도시빈민 지원정책을 직업, 기초생활, 교육, 의료, 음식 등 5개 분야로 세분화
 - 직업(MYJobs@Wilayah) 정책은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코로나19 피해 업종 6개(서비스, 건설, 청소, 유지보수, 제조, 포장)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 2020년 한 해 동안 3,259개 일자리 창출
 - 기초생활(MY Grocer@Wilayah) 정책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5~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MYSchoolBus@Wilayah) 정책은 저소득층 가구 1만 명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지원
 - 2020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 67가구 9,704명의 학생에게 94대의 통학버스 지원
 - 의료(MYMedic@Wilayah) 정책은 쿠알라룸푸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식 검진소를 운영해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음식(MYFood@Wilayah) 정책은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2020년 한 해 동안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32,000명의 시민에게 식료품 및 생필품 제공
 - 음식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라부안)는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MyBeras@Wilayah 프로그램을 운영
 - MyBeras@Wilayah 프로그램의 대표 지원책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3,000포대의 쌀을 지급하는 사업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1/02/01/over-30000-families-in-kl-below-poverty-line/>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pm-5my-programme-tackle-urban-poverty-issues-federal-territories>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1/15/ft-minister-myberas-programme-to-help-b40-during-mco/1940816>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교정시설 수감자 자녀 지원 확대

인도 델리 NCT¹⁾ / 사회·복지

인도 델리 NCT 정부는 교정시설 수감자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고 생계비 지원 금액을 확대. 이는 수감자 자녀의 범죄 대물림을 예방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수감자 미성년 자녀의 생계 지원 및 인권 향상 등을 추진

정책적 배경

- 한 가정의 경제활동 주체인 부모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자녀를 동일시하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고통 등의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
 -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는 사회적 보호의 부재로 경제적 위기와 함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범죄 대물림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2014년부터 수감자의 자녀 보호 대책을 시행해왔음. 최근 지역 아동권리보호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한 ‘수감자의 자녀 보호 개선계획안’을 승인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
 -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감자 자녀의 교육 중도 포기 등을 우려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완책을 마련
- 수혜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한 가정의 재정 자립이 어려울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에도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자를 확대
 - 기존에는 부모 모두가 교정시설에 수감되거나, 부모 중 1명 수감 및 1명 사망의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음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는 생계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에게는 매월 4천 루피, 둘째 자녀부터는 1명당 3천5백 루피로 증액하여 수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 효과 예상
 - 기존의 생계 지원금 3천5백 루피, 3천 루피 대비 각각 500루피를 증액
- 교육 지원 측면에서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상담 등의 보호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학비 납부에 부담이 있는 경우 교육비가 무료인 가까운 공립학교로 재배정하여 제도권 교육에서의 이탈을 방지
- 행정적 측면에서는 수감자 체포 당일에 가족에게 수감자 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절차를 의무화
 - 지원 신청 시에는 내무부의 관리하에 가정을 방문하여 수혜자 조건을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

정책 평가

- 기존의 수용자 자녀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으나 델리 NCT 정부의 보호활동과 경제적 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잘못과는 별개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의
- 이외에도 교정시설 수감자들의 남겨진 가족에 대한 우려를 줄여 교정(矯正)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진] 델리 티하르(Tihar) 교도소 전경

<https://www.citindianews.in/this-scheme-is-going-to-be-started-for-the-children-like-ankit-a-noble-initiative-of-the-kejriwal-government/>

<https://www.newindianexpress.com/cities/delhi/2020/dec/21/children-with-one-parent-serving-jail-term-can-get-financial-help-from-delhi-government-2239083.html>

<https://www.sundayguardianlive.com/news/delhi-govts-financial-aid-jail-inmates-children>

<https://www.theprint.in/india/delhi-to-give-cash-to-children-who-have-even-one-parent-in-jail-cabinet-note-in-the-works/601937/>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 도입

일본 / 환경·안전

일본 국토교통성은 ‘그린 사회’와 더불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주택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까지 도모한다는 목표로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를 도입. 일정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갖춘 주택을 취득한 주민에게 ‘새로운 일상’이나 ‘재해 방지’ 등을 위한 추가 공사를 하거나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급

배경 및 목적

- 최근 일본에서는 2020년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환경 문제나 재해 방지 등에 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
- 일본 국토교통성은 ‘그린 사회’와 더불어 지역의 민간 수요에 기초한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투자 유도 방안을 모색
 -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성은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는 주민에게 상품이나 추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그린 사회’와 경제 선순환을 꾀하는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グリーン住宅ポイント制度)를 도입

주요 내용

-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갖춘 주택의 신축, 리폼이나 기존 주택 구입 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 ①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을 갖춘 주택¹⁾이나, ② 에너지 절약 기준에 부합한 주택²⁾을 신축하는 경우 각각 4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지급
 - 도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또는 다자녀 가구가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를 지급
 - 자신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만 포인트를 지급

1) 인정장기우량주택, 인정저탄소건축물, 성능향상계획인정주택, 제로 에너지 하우스(ZEH) 중 하나를 말함

2) 주택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단열 등 성능등급’과 ‘일차에너지 소비량 등급’

4 이상의 성능을 가진 주택을 말함

- 주택을 리폼하는 경우에는 공사 항목별로 포인트를 지급하며 1채당 30만 포인트를 상한으로 설정
 - 다만 청년세대·육아세대가 리폼을 하는 경우 또는 안심R주택³⁾을 구입해 리폼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45만 포인트로 인상
 - 리폼 시 단열공사와 에코주택 설비(절수형 화장실, 태양광 이용 시스템 등)를 갖추는 것이 필수
 - 내진 공사, 배리어프리 공사, 리폼 하자보험 가입 등을 하게 되면 항목별로 정해진 포인트를 추가 지급
- 거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이나 구매 목적에 따라 포인트를 달리 지급
 - ‘빈집 은행’에 등록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교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또는 재해 위험이 큰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3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주택 철거로 인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5만 포인트를 지급
- 지급 받은 포인트는 새로운 일상, 환경, 안전·안심, 건강·고령자 대응, 육아 지원, 일하는 방법 개혁,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상품이나 ‘새로운 일상’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추가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
 - ‘새로운 일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일하는 공간 설치, 소음을 비롯한 환경 개선, 코로나19 감염 방지, 가사부담 경감 등에 이바지하는 상품이나 공사를 의미

정책 평가

-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갖춘 주택은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공사나 상품에 제한이 있는 등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음
- 그러나 포인트를 사용해 추가 공사를 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용이 낮은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환경에 이바지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점 등 제도 이용에 따른 이점이 있음
 - 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 가정용 이산화탄소 히트 펌프 온수기 에코큐트(EcoCute)와 같은 에너지 절약 설비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몇 년 안에 초기 비용에 상응하는 운영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3) 정부가 정한 일정 조건(신내진기준에 적합할 것, 리폼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 주택 이력 등 보관상황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등)를 만족해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https://www.mlit.go.jp/report/press/house04_hh_000974.html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4_000181.html
<https://www.re-port.net/article/news/0000064323/>
<https://www.re-port.net/article/news/0000064248/>

권용수 통신원, dkrnlwjstjf@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00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3월 29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